| 현불 논단 |

돈의 함정



방영준
성신여대 명예교수

시중 은행 발표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구입까지 21년 걸려
소비 줄였음에도 가계부채 늘어나

세계 석학 꼽은 한국인 불행 원인
물신화 · 만족 못 하는 삶 · 경쟁사회
결국 돈이 우리 행복 저해 주인공

바른 사회 구현위해 돈의 흐름 중요
돈 다스리기, 탐진치 다스림과 유사
스스로 함정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대한민국에 사는 '보통 사람'들의 삶이 매우 팍팍하다고 한다. 한 시중 은행이 발표한 '2018 보통사람 금융생활보고서'에 의하면, 전세 거주자가 서울의 아파트를 구입하는데 21년이 걸리고, 월세 거주자는 40년이 걸린다고 한다. 또한 가구소득은 낮아졌고 허리띠 졸라매고 소비를 줄였지만 가계부채는 오히려 늘어났다. 반면 고소득층의 주식과 펀드 수입은 높아져가고 있다. 양극화의 고착현상이 그대로 나타난다. 자본의 사회에서 돈이 차지하는 비율은 절대적이다. 생존의 밑바닥에서부터 교육 등 자기실현의 여러 단계에 이르기까지 돈의 역할과 위력은 대단하다.

한국인은 불행하다고 한다. 영국의 신경제재단(NEP)등 세계 유수의 기구들의 발표에 의하면 한국인의 행복도는 중하위권을 맴돌고 있다. 또한 자살율, 이혼율, 40대 남성 돌연사율, 직장 스트레스 등이 OECD국가 중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삶의 질에 대한 세계적 연구가인 디너(Ed. Diener)교수는 한국인의 불행 원인을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물질적 가치에 과도하게 치중하여 화폐의 노예가 되었고, 기대의 과도화로 생활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으며, 치열한 경쟁적 삶으로 인해 인간관계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낮다는 것이다. 단정적인 평가에 저항감도 들지만 돈이 한국인의 행복을 저해하는 주인공임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돈은 행복의 초석으로 볼 수 있다. 춥고 배고프고 병들면 행복은 불가능하다. 돈이 없으면 불행하다. 그런데 삶의 객관적 지표로 보면 한국의 생존적 구비조건은 세계적으로 높은 편에 속한다. 그런데 한국인은 왜 불행을 많이 느끼는가? 돈은 삶의 여정에 필요한 수단적 가치이다. 부자가 되는 것은 참 좋은 일이다. 부자가 되면 자신의 꿈을 실현시키고 어려운 이웃과 사회에 많은 도움을 줄 수 기회를 가지게 된다. 마크 저커버그나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이다.

그러나 부자가 돈 버는 것을 목적으로 할 때 그 부자는 불행해 질 것이다. 돈의 수단적 가치가 목적적 가치로 전도될 때 돈은 사람을 불행케 만든다. 돈은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을 가지고 있어 끝없는 욕망을 불러일으킨다. 법정 스님의 '무소유'는 돈과 물질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욕망의 수레바퀴에 짓밟히지 않도록 경고하는 것이리라.

행복하고 바른 사회는 우리의 이상이다. 이 이상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돈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돈의 흐름이 왜곡되지 않고 바르게 흘러가도록 해야 한다. 돈의 흐름 문제는 사회정의 구현의 제일 큰 과제다. 즉, 배분적 정의와 기회구조의 불평등 문제, 그리고 경쟁규칙의 불평등 등이 큰 과제로 떠오른다. 한국 불교의 공업(共業)적 과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나 이 과제는 인간이 함께 살면서 해결할 영원한 과제로 계속 등장할 것이다. 시지프의 운명처럼.

급한 것은 내 자신이 부자가 못되고 가난하더라도 행복하고 뜻있게 사는 지혜를 찾는 것이다. 여기에 붓다의 가르침이 있다. 탐진치(貪瞋痴)는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세 가지 독(毒)이다. 오늘날 돈은 탐진치를 일으키는 제일 큰 요인이다. 돈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하는 문제는 탐진치를 다스리는 문제와 연결된다.

돈의 노예가 되지 않는 것은 무명(無明)을 넘어서는 팔정도(八正道)의 수행을 요구하는 것이니 그 무게를 어찌 감당하랴. 그래도 돈이 부족해 불편을 느끼더라도 불행해지고 싶지는 않으니 돈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정신줄을 놓치지 말아야겠다. 붓다의 가르침을 되새기면서. 옛날 옛적 원시 공동체 사회에서는 돈 걱정을 하지 않았을 것이니 그런 시대가 오기는 오는 건가?

社 說

법진 스님, 선학원 이대로 방치할 건가

여직원 성추행혐의로 1심서 실형을 선고받은 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이 시국성명을 낸 원로들에게 대화를 제안했지만 실상은 변명으로 얼룩진 불통의 장이었다. 선학원 이사회가 원로들에게 보낸 공문을 훑어보면 모양새는 그럴싸하지만 자세히 뜯어보면 이미 그 안에 초청자 자격을 현직 창건주와 분원장으로 제한하고 있다. 결국 시국성명에 39명이 참여했지만 회의장에 출입 가능한 스님은 10여 명에 불과했다. 이는 이사회가 선학원 구성원을 대중이 아닌 창건주와 분원장으로 제한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물론 문제가 이것뿐이었다면 비난도 함께 그쳤을 것이다.

원로들을 모아놓은 자리에서 법진 스님은 자신에게 잘못이 없음을 주장했다. 성추행 혐의 또한 법원의 잘못된 판결임을 강조했다. 내부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 사회법에 의지하는 일반적인 종교인의 자세와는 반대되는 모습이다. 그렇다면 밤늦게 여직원을 불러내 목적지도 밝히지 않고 강원도로 달려가 변복하고 음주한 일은 스님으로서 바른 자세인가. 그렇게 떳떳한 법진 스님은 대리인을 통해 합의금 1500만원을 제시했다.

또한 조계종과의 관계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악화됐음에도 선학원을 대표하는 법진 스님은 구성원들의 의견수렴에 관심 갖지 않았다. 다음 달 전국분원장회의서 자신의 거취를 표명하겠다고 밝혔지만 또다시 사표만 던진 채 책임을 다했다고 면피한다면 선학원 정상화 가능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제라도 일선 분원들이 겪는 어려움에 귀 기울이고, 제대로 된 해결책 모색에 나서길 바란다.

불교스카우트 활성화가 불교 미래

2012년 6월 9일 서울 조계사 앞마당에는 1500여 사찰 청소년이 운집했다. 42개 사찰에서 모인 이들 청소년들은 바로 스카우트불교연맹 회원들이었다. 불교스카우트는 불교의 자비 정신을 바탕으로 다양한 봉사활동과 참선 등 불교적 수행을 통해 정서 함양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는 것을 목표로 창설됐다.

창립 6주년을 맞은 2018년 2대 연맹장으로 성행 스님이 취임했다. 스님은 2002년부터 의왕 청계사 주지를 맡아 지역 포교와 복지 활성화를 위해 열정을 쏟고 있다. 특히 동련 이사장을 비롯해 파라미타 청소년연합회 이사 등을 역임하며 어린이 · 청소년 포교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해 왔다.

그래서 이번 스카우트불교연맹에 거는 기대는 크다. 불교계에는 어린이 포교의 동련, 청소년 포교의 파라미타 등이 있다. 하지만 체험 활동이 각광 받는 현대 어린이 청소년 교육 분야에서 스카우트불교연맹의 활약은 절실했다.

이런 기대에 맞춰 스카우트불교연맹은 세계스카우트연맹과 연계해 청소년 캠프를 여는 등 대외적인 활동에 앞장서 왔다.

이번 2대 연맹장 취임을 기해 스카우트불교연맹은 비전 2027계획을 발표하고 그동안 종립학교, 사찰 등과 연계가 다소 떨어진다는 문제점을 수정, 적극적인 활동에 나설 방침이다.

불교계 내에서는 그동안 세대전승에 실패, 어린이 청소년 포교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자신은 사찰에 나가지만 아이들은 사찰에 보내지 않는 것이 불자들의 특징이란 지적도 있었다. 새로운 비전을 공표한 스카우트불교연맹의 발전에 기대를 걸며, 불교스카우트 활동에 대한 불자들의 보다 따뜻한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때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 · 세계화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박종수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부 산 지 사 : (051)405-9402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기자칼럼

제주 4.3 불교 연구와 종교편향



신성민 취재부 부장

제주 4.3항쟁 70주년 기념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 본지는 이에 맞춰 제주 4.3항쟁과 불교 관련 연구를 진행해 온 연구자인 한금순 제주대 외래 교수를 와이드 인터뷰했다. 약 2시간 가까이 진행된 인터뷰에서 생생한 피해 사례 관련 이야기와 그간의 고충 등을 들을 수 있었다.

이 중 눈길을 끌었던 것은 제주 4.3과 불교 관련 연구를 진행하면서 겪었던 고충이었다. 한 교수가 이야기한 고충을 분석하면 내부와 외부적 요인으로 나뉜다.

우선 내부적 요인을 짚어보면 불교계 피해자인 스님들은 후손이 없어 피해 접수와 명예 회복 주체가 명확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리고 설사 피해를 입었더라도 시대가 이를 대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기는 아니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후학 스님들의 관심도 많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외부적 요인은 일종의 관료주의와의 마찰이다. 한 교수가 함께 공부했던 제주불교사연구회는 1998년부터 4.3과 제주지역 불교계의 피해 사례를 조사 · 연구하고 있었고, 이 결과는 2004년 조계종이 발간한 〈한국전쟁과 불교문화재Ⅱ-제주도편〉에 실렸다. 그 후 제주 4.3평화재단서 분야별 피해사례 연구가 시작됐지만, 불교 관련 연구는 좀처럼 진행되지 못했다. 연구 사업을 위해 사업을 제안하면 종교간 형평성을 이뤄야 한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불교 연구가 중심이 될 경우 종교편향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이유였다.

얼핏 들으면 합당한 이야기다. 공공성이 있는 사업에서 종교색을 지우는 것은 타당하다. 하지만 피해사례가 명확한 경우는 다르다. 4.3 당시 종교계 피해는 불교에 집중됐다. 이에 대해 한 교수는 이렇게 말한다.

"그 당시 개신교나 천주교가 있긴 했으나, 교인은 얼마 안됐어요. 불교보다 세도 적었고요. 또, 불교만큼 적극적으로 활동을 안 해서 피해가 많이 없었습니다. 아마 평화재단에서도 종교 부분을 정리하는 게 어려울 겁니다. 뭐든 제안을 하면 '종교 부분은 굉장히 민감해서, 다른 종교에서 편향적이라고 제기하기 때문에 공평하게 하려고 노력 중'이라는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인가. 평화재단이 만든 진상보고서에는 종교계 피해 사례는 별도로 집계돼 있지 않다. 4.3 사건일지에만 관음사 전소와 사찰 피해, 스님이 희생됐다는 아주 짧은 기술만 남겨 있다.

4.3 당시 제주불교계는 민중을 돕다가 많은 피해를 입었다. 당시 관음사 주지 오이화 스님은 무장대를 숨겼다는 의혹으로 토벌대에게 고문을 당했고, 후유증으로 사망했다. 이성봉 스님은 사찰에 마을 주민을 숨겼다가 총살당했다. 신흥연 스님은 마을 청년들을 절에 숨기고 밥을 해먹였는데, 토벌대의 죽창에 생을 마감했다.

당시 희생된 스님들 대부분은 제주 민초들과 함께 하다가 사망했다. 타인을 위해 자신을 버린 그들의 자기희생은 진정한 종교인이 무엇임을 보여준 사례다. 이는 종교를 떠나 의인(義人)으로서도 귀감이 될 만하다.

피해 사실은 분명한데 '종교라는 이유'로 혹은 '종교적인 이유'로 배제되는 것이야 말로 역사를 오독하는 행위다. 바르게 기억하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가 4.3을 주목하는 이유임을 잊지 말자.

제 12 기 영남전통범음 · 범패 교육과정 수강생 모집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에서 2018년도 초급 · 중급 · 고급 과정생을 모집합니다. 영남불교의 전통의식 범음범패, 작법(바라춤, 나비춤) 등에 관심있는 스님 및 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교육기간 및 과정
가. 초급과정(2개월) ■ 송주 : 도량석, 종송 ■ 예경 : 칠정례, 오분향례, 각단 예불
■ 권공 : 삼보통청, 상단 중단 권공, 각단불공, 요령, 목탁
나. 중급과정(4개월) ■ 시련, 삼신이운(괘불이운), 대령, 관욕, 옹호게 (신중작법 39위, 104위), 당일천도, 49재, 지장청, 시왕도청, 전시식, 관음의식, 상용영반, 화엄시식, 구병시식, 봉송편
다. 고급과정(6개월) ■ 바라춤 :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화의제바라 ■ 나비춤 : 오공양, 유원승, 요잡작법
■ 사 물 : 태징, 북, 광쇠, 호적(태평소), 전통의식타법 ■ 특 강 : 종사이운, 종사영반, 점안의식, 시다림(다비), 예수재의식 등
라. 강 주 : 석법운 스님

2. 개 강 ■ 2018년 3월 22일 목요일 오전 11시
■ 수업시간 : 초급과정 :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 ~ 오후 1시 / 중급 · 고급과정 :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 오후 5시
3. 입학자격 : 종단과 승 · 속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
4. 수 강 료 : 교육비 10만원(교재비별도)
5.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본 총무원에서 교부)
6. 장소 및 접수처 :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 9길 28 (복성리 1095)
대한불교응공조계종 총본산 총무원 동명사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
7. 접수기간 : 상시모집
8. 문 의 처 : 010-3544-2605 / TEL 054) 974-2605 / FAX 054)974-2705

뜻을 같이할 종도스님을 모집합니다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

하기책자 5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0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전생의 빚을 소멸시켜 자신의 운명을 바뀌게 하는"

생전예수재기도의 중요성과 그 성취효과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생전예수재는 "왜" 필히 지내야만 하는가?
② 생전예수재 신청 및 집에서 기도하는 방법
③ 생전예수재 기도후 일어난 영험사례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 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768-8413